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8월 1일
월 간 발 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49 호

원정대성사 부친 손기현, 항일 운동 주도

독립단 외교원으로 체포, 종조 일대기 편찬 중 확인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대성사의 부친 손기현(孫基賢, 1883~1942)님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여 순국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종단이 창종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원정대성사 일대기를 편찬하던 중 대성사의 행장 중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 침탈

종조 원정 대성사의 부친 손기현 님

조선총독부 밀정보고서 기록 중·러와 무기 구매와 교섭 등

시기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여러 역사적 문건에서 드러났다.

1920년 5월 1일 만주 간도파견원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전보로 비밀보고한 '간도지방 독립운동가 사찰 보고서'에 따르면 대성사 부친은 환인현 한교공회 외교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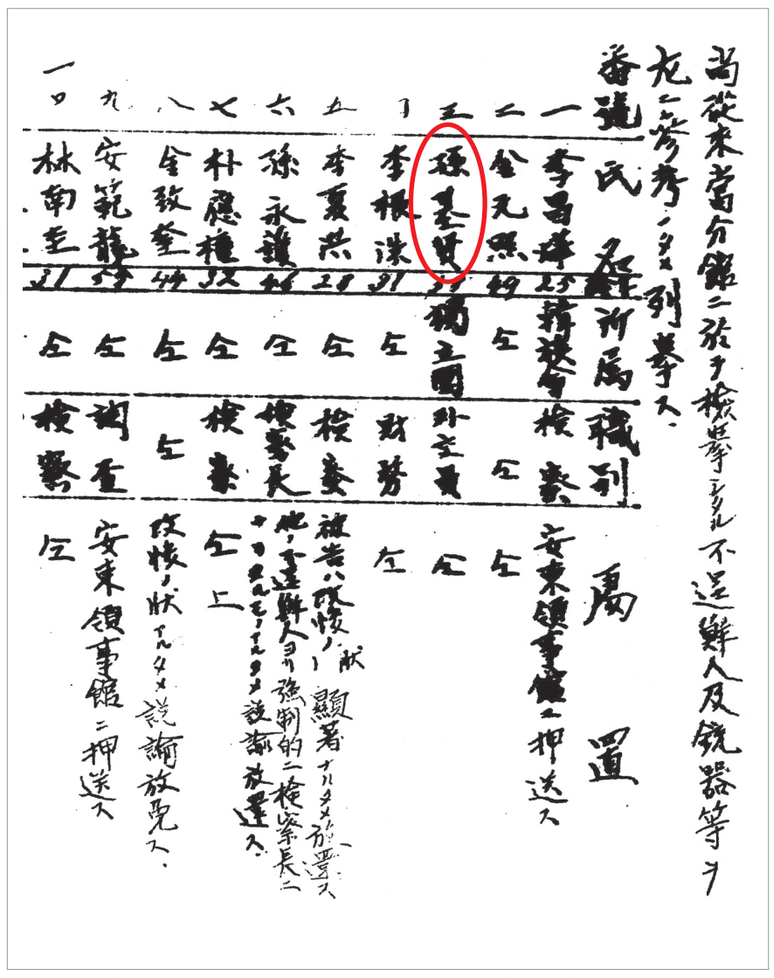
이 밀정보고서는 특히 서간도 일대에서 상해임시정부와 연결된 독립운동가 중 주요 인물에 대한 활동을 담고 있으며, 환인현은 당시의 봉천, 지금의 중국 선양시다.

환인현 인근은 상해임시정부 대한독립군 서로군정서가 있던 지역이고, 신흥무관학교가 있던 곳으로 당시 대성사 가족은 봉천 인근 남관이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대성사 부친이 외교원으로 활동한 한교공회는 서로군정서 하부 조직으로, 외교원은 일종의 외교관의 신분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 한인을 대표하여 무기 구매 등 외교적 교섭을 하는 신분이다. 밀정보고서에 손기현에 대한 정확한 직책이 기록되어 있어 서간도 독립운동 세력 중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건인 독립군 현황과 검거보고서에도 손기현은 독립단 외교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0년 10월 6일 안동영사관 통화분관 주임인 혼다가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손기현은 의병전쟁 및 항일독립전쟁기의 대표적 장군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관련 인물로 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총 90명의 체포된 독립운동가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데, 손기현은 체포자 중 3번으로 기록돼 있다.



1920년 10월 6일 일본 외무성 체포보고서 (체포날짜 10월 1일 추정)

이와 함께 한족회암살대 지휘관인 이동훈, 독립운동가 이척 사령관이 한족회 외무청장으로 나와 있고, 독립열사 윤세복 등의 상세한 직책과 함께 보고 되어있다.

후에 영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대성사 부친은 신의주로 압송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유가족 증언에 의하면 체포당시 어린 대성사께서 이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사 일대기를 집필 중인 김천 작가는 "부친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역사의 빛을 다시 밝히는 일을 하셨고, 대성사님은 부친을 지켜보고 독립군들을 위해 주전자라도 들어 나르는 일에 힘을 보탠 숙업으로 무명에 덮인 마음의 빛을 되찾는 일을 하신 것 같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밝혀진 가족사를 통해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가르침의 깊이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박재원 기자

7월 15일 총지사에서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선망부모 조상영식 극락왕생 발원

총기 49년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을 맞이하며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 사원에서 일제히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진호국가불공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백미 공양을 올리며 선망부모 조상영식 해탈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불공을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조속 소멸'을 서원 사항에 추가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으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다 함께 서원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불공 회향일 해탈절 법어를 통해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법회가 현 시국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불공이자 법회라고 할 수 있다."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자,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체중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려운 시국에도 깊은 신심으로 정진 수행하고 있는 교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는 "일체 중생이 구경 성불을 하도록 공덕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향이다."라고 말하며 "불공을 하며 닦은 공덕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덕이 가도록 마음을 돌리고 구경에 가서는 일체중생이 해탈 열반하여 성불로 이어지기를 서원해야 한다."고 설법했다.

부산 최대 포교지인 정각사는 회향을 앞둔 7월 월초 불공 기간에 주교 법경 정사의 지장경 강독을 통해 선업공덕과 죄업중생의 과보를 살펴보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위한 불공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매년 회향일 다음 날인 7월 16일에 진행해왔던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올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됐다.

불교총지종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을 7월 15일로 정한 것은 우란분절과 관련이 있다. 불교계 5대 명절이자 백중인 우란분절은 목련 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여러 대중이 다 함께 모여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린 날이다. 불교총지종은 태양력에 기준하여 양력 7월 15일을 '해탈절'로 정했다.

종/조/법/어

만약 재물 옳게 쓰면 화의 문이 닫히므로
일체 재물이 오게 되고, 무량한 복이 오게 된다.

지 면 안 내

5면 이달의 법문
6면 심념처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3)
7면 8.15 광복 기획특집
11면 대구경북대병원 이은별 간호사 인터뷰

제40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신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추선불사를 봉행합니다.

날짜 _ 총기 49년 9월 8일 화요일
장소 _ 총지사 원정 기념관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종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아미타부처님께 왕생극락 발원합니다"

혜암 종사, 불멸심 지수 열반 1주기 추선
무공 대법사 49재, 마산 운천사에서 봉행

故 혜암 대종사

故 불멸심 지수

故 무공 대법사

불교총지종에서 평생 수행과 교화를 위해 정진하다 지난해 열반에 든 혜암 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 7월 10일 국광사(주교: 혜안정 전수)에서 봉행되었다. 또 불멸심 지수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도 7월 22일 건화사(주교: 법상 정사)에서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가족을 비롯한 동참 스승과 대중들은 두 스승의 숭고한 삶이 육신을 떠나 영원한 열반에 들기를 추선하고, 유지를 받들고 이어나갈 것을 다함께 서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일 열반에 든 무공 대법사의 49재가 마산 운천사(운천사: 정원심전수)에서 봉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운천사에서 주교를 맡아 중생제도와 교화를 마치고, 운천사에서 49재를 맞게 된 무공 대법사의 업적을 기리며, 서방 극락정토 아미타부처님께 왕생극락을 한마음으로 서원했다.

왼쪽부터 지현 전수, 남혜 정사, 법경 정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법일 정사

제 152회 임시종의회 정각사서 개최

동해중학교 임원 선출, 수계식 일정 유보

불교총지종 제152회 임시종의회가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중앙종의회 의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16명의 종의원 중 12명과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종회의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올해 임기 만료되는 동해중학교 임원선출이 있었다.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인선 정사는 당연직으로 순연되었으며,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법상인 전수와 강경중 이사 2인과 12월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서령 정사에 대해 연임을 결의했다.

보고 안건에 따라 종단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현재 불교총지종 50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원정대성사 초상화(진영) 제작 △원정대성사 일대기 발간 △창종 50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종단 50년 사 등에 대해 보고하고, 종의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연내 예정이었던 교도 수계식은 코로나 여파로 일정 확정에 대해 잠정 보류했다.

한편 이날 종의회에 앞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3월에 '총지 50년 사(가칭)' 편찬 및 발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장을 전달했다.

통리원장,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과 환담

7월 31일, 라디오 'BBS초대석' 녹화 후 방문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지난 7월 30일 BBS 불교방송을 방문하고 이선재 사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인선 정사는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BBS초대석'(한지윤PD) 대담자로 초대되어 한 시간 여의 녹화 방송을 마친 후 이 사장이 취임 후 통리원을 예방한 이래 첫 답방으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으나, 불교방송은 총지종을 비롯한 종단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만공회 불자들의 원력은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총지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선 정사는 "이사 종단으로 방송포교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총지신문 광고나 법회 등을 통해 새 공덕주를 모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편 'BBS초대석'은 불교 포교와 신행에 앞장 서온 명사들을 초청해 대담하는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장수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매주 일요일 07:00- 08:00 방송 된다. 이날 인선 정사는 불교총지종의 소개와 함께 불교와의 인연, 승직자로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갔다. 이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녹화되어 BBS TV와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다.

인간 방생비 코로나19 극복에 쾌척

서울경인교구, 사회복지법인에 기부

왼쪽부터 최영아, 김옥인 교도, 김은숙 지회장, 원당, 덕광, 록경 정사

서울경인교구(교구장: 록경 정사)가 하반기 49일 회향을 맞아 해탈절에 십시일반 교도들이 희사한 '코로나19 극복발원 성금'을 불교총지종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다. 지난 7월 31일 교구장 록경 정사와 서울경인지회 교도들을 대표해 김은숙 지회장, 최영아, 김옥인 교도는 통리원을 방문해 법인 상임이사 원당 정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록경 정사는 "자비 희사는 분별심이 없는 보살행이므로, 교구 차원으로 다같이 마음을 모았다."며 "49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서원했으며, 작은 실천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종단협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회원 자격 조건 강화의 정관 개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2020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 징계 규정을 개정해 소속 회원 종단 총무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간 자격 중지토록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회원 자격 조건을 강화해 종단과 법인단체 설립 후 만 3년 이상에서 창종 만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상임이사'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이사' 수를 '40인 이내'를 '45인 이내'로 임원 정원을 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 또는 순연하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총10억7300만원 감액한 8억2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단협은 회원 종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해외 성지순례를 코로나19 여파로 대신해 제주도에서 가칭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변화와 종교의 역할' 강연회와 회원 종단 간담회, 불교·역사문화·자연문화지역 탐방 등 오는 10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열기로 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참석자들은 회의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 덕분입니다. 힘내세요."라는 구호와 함께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편 올해 이사회가 확정한 의전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불교총지종, 대각종, 삼론종, 보문종, 원효종, 일붕선교종, 총화종, 대승종, 용화종, 미륵종, 본원종, 원융종, 여래종, 염불종, 조동종, 법상종, 법륜종, 정토종, 진언종, 화엄종, 법연종, 미타종, 일승종, 법화종, 불이종 순이다.

여일, 원경 군법사 통리원 예방

국군장병 봉축 위문품 답례 인사

왼쪽부터 여일 조승한 법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원경 박종현 법사

호국광명사 28사단 여일 조승한 법사와 호국비룡사 25사단 원경 박종현 법사가 지난 7월 29일 통리원을 방문해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하고, 국군장병 봉축 위문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선 정사는 "코로나로 인해 군장병들이 외출과 휴가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군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부족한 물품이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종단은 군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고 인사했다.

종단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울경인교구와 신정회 회원들을 앞세워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국군장병 봉축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두 군법사의 통리원 방문이 이루어졌다.

반야심경과 역사 인식 (1)

지혜의 눈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나뉠 수 없어
불교는 서양철학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

저는 고등학교 때 반야심경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후 대학 진학 후 도서관에서 줄기차게 빌려보는 책 목록의 대부분이 불교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불광이라는 불교 월간지와 현암사의 불교개론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김동화 박사의 유식학을 거쳐 마구잡이로 읽어가다가 나중에는 선림고경총서의 선어록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역사를 공부하면서 불교 서적을 읽는 일이 좀 뜸해졌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사 인식론(認識論)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나 자신은 현재에 속해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의 내용은 역사가에 따라 평가가 서로 극단적으로까지 다르기도 합니다.

근대 역사학을 정립한 독일의 랑케가 주장한 객관주의적 역사학을 주창하였습니다. 역사가는 남아있는 사료(使料)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랑케의 주장은 19세기에는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주의적 해석이 등장하면서 사회를, 자연을, 세계를, 우주를 인식하는 인간의 인식작용은 객관성이 무너지고 주관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세기 중반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역사란 과거의 사실과 현재 역사가의 대화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역사 인식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역사적 사실보다 역사가의 인식에 더 중요한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19세기에는 그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카에 의해 역사가의 주관이 강조되었다가 20세기 후반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역사가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창작이라는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변화는 서양 인식론의 원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서양철학의 인식론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고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식 주체를 우선하면 관념론으로 인식 대상을 중심으로 인식작용을 설명하면 유물론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수많은 절충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과연 나뉠 수 있을까요?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인 사회와 자연과 이 우주에 속해있으면서 과연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이 세계에 속해있는 우리가 세계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떨어져서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결국 편의상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어 전개된 서구 철학의 인식론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 같기만 했던 반야심경의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미촉법을 서양의 인식론으로 비춰보니 너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양철학의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칼럼리스트 김태원

내마음의 등불

건화사 정원 전수 편

자네가 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르단 말인가

보조 국사에게는 누님이 있었다. 보조 국사가 누님에게 항상 염불을 하라고 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아우가 있는데 염불 공부를 해서 무엇 하나. 설사 내가 도를 닦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까지 제도해 주는 아우가 있는데 나 하나쯤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지 않으려나?"
보조 국사는 어느 날 누님이 절에 오는 것을 미리 알고 국사는 혼자서 음식을 맛있게 들고는 상을 물렸다.
보조 국사의 누님은 섭섭하고 노여운 감정이 일었다.
"누님,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누님은 왜 배가 아니 부르십니까?"
"자네가 먹었는데 어찌 내 배가 부르단 말인가?"
"제가 도를 깨치면 누님도 제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배부르면 누님도 배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락도 대리 극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보조 국사는 상좌를 시켜 누님의 점심상을 차려 오게 해놓고 말했다.
"누님, 이 동생이 제도할 것을 믿지 말고 당신 자신의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시오.
내생에 극락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이후로 보조 국사의 누님은 지성으로 염불을 하며 수행하였다고 한다.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건화사 정원 전수님은 성화사 금강륜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 그림=덕광 정사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앤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찐보리수 108염주 ₩ 40,000

구입문의 | 통리원(02-552-1080) 또는 각 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

연명의료 27

마지막 날들을 위한 준비

법상 정사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야 비로소 평생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떠오르기도 한다. 말기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후회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이라고 한다.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인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갈등을 정리하고 떠나지만, 후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의심, 소외와 미련 속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게 된다.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체인 인간이 삶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사소한 일상'

연명의료 치료를 위해 마음치유를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내가 만일 6개월 시한부라면'이란 주제로 글 쓰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신앙 연륜이 깊은 분들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꽃씨처럼 날아와 심어졌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애정과 위트가 담긴 한 줄의 부고문을 쓰겠다.'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추억들에 작별하고, 그 땅에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내가 떠난 다음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싶다.'

평소 가족들에게 낯간지러워 사랑의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삶이 유한하다고 느끼면 달라지는 듯했다. '아내에게 나와 살아 줘서 고맙다고 말하겠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태어나 줘서 정말 고맙고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말하며 한 번씩 끌어안아 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자기반성이며, 그 반성은 삶에 대해 더욱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살아있는 날의 장례식을 하고 싶다'는 글이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지냈던 이들을 초청해 토크 콘서트와 자서전 출판기념, 아내의 그림 전시회로 진행되는 삶의 마지막 축제를 열고 싶다고 썼다. "내 삶의 마지막 축제의 향연을 준비하고 싶다. 그날에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며 미소로 답하고 싶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맞춰 6개월을 5단계로 나눠 죽음 준비에 관해 썼다. 그의 3단계 죽음 준비 목록에 시선이 한참 머물렀다. '옷은 수의 대신 입을 해군 정복 한 벌만 남겨두고 없앨 것.' 하얀색 해군 정복을 입은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다 이해인 수녀의 시 한 편이 생각났다. "삶의 의무를 다 끝낸 겸허한 마침표 하나가 네모난 상자에 누워 천천히 땅 밑으로 내려가네…"(이해인의 시 '하관' 중에서)

삶이란 꽃씨처럼 땅에 심어져 꽃을 피우고, 꽃씨를 닮은 마침표를 찍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할 때 자주 만지작거렸던 분꽃 씨가 기억이 난다. 까맣고 동그란 분꽃 씨를 터뜨리면 하얀 가루가 들어 있어 신기해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런 꽃씨 같은 마침표 하나를 남기는 것이 인생일까.

분명한 것은 우린 유한한 인생을 살다 지수화풍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사소한 일상이다. 하루하루 속에 수많은 행복의 알갱이를 뿌려놓자. 그 작은 알갱이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심뽀이야기 10

기억과 무의식 그리고 잡념(雜念)

법선 정사

수행(修行)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에 의해 수행에 집중할 수 없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세와 호흡이 안정되었는데도 오히려 잡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정신이 집중되는 단계에서 잡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정신집중의 정도가 더 깊어지면 먼저 떠올랐던 잡념은 사라질 것이지만, 다른 잡념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사실 수행이란 끊이지 않는 잡념을 제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이란 끊이지 않는 잡념을 제거해 가는 과정 아뢰야식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

잡념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신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대상들이 차단되고, 이로부터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의해 억눌려 있던 상념들이 떠오르게 된다.

일상적인 의식에 의해 억눌려있던 상념을 심층의식이라 하고, 억눌려있던 상념이 우리가 알아차리는 상태로 오를 때, 이것을 표층의식이라고 한다.

정신집중이 시작되면, 표층의식이 사라지면서 다른 심층의식이 표층의식으로서 떠오르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수행 도중에 떠오르는 잡념이란 반복해서 표층의식으로 바뀌는 심층의식을 가리킨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의식이 모두 표출되어 제거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 잡념이란 곧 기억이며, 잡념의 표층의식으로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심층의식이란 우리에게 기억되어있는 내용인 것이다.

기억은 어떤 일을 겪은 다음의 그 나머지 세력(勢力)이나 기세(氣勢)로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 기억이란, 과거에 이루어진 경험이 하나의 여세로서 우리의 의식 속으로 잠행(潛行)했다가 특정한 자극을 만나면 과거의 경험내용을 현재의 의식표면에 재생하는 것이다.

기억은 내면의 의식 속에 잠복

우리의 기억은 기억할 당시의 세계, 즉 대상의 모습을 간직한 채 내면의 의식 속에 잠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전에 기억으로 잠복해 있던 경험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른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잠복 기능이 아예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의식 상태를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경우에는 경험한 내용이 의식의 어딘가에 전혀 저장되지 않을 것이므로 항상 백치 상태로 살아야 할 것이다.

본능에 의한 생존력으로 먹고 자는 생활만 반복될 뿐이며, 세계의 변화는 기억되지 않으므로 자신과 세계는 그때그때 보이는 정지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인간은 자신과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 비현실에서 생존할 뿐이다.

다른 한 가지 경우에는 경험한 과거의 내용이 계속 겹쳐서 현재의 대상과 어우러질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가 구별되지 않는 무분별의 상태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인간에게는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정신착란의 상태로 인해 실제의 삶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억이라는 잠복 기능이 없다면, 자신의 삶과 외부의 세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당면한 현실 세계에 대한 앎이 기억으로서 잠복했다가 경우에 따라 의식으로 표출됨으로써 우리 자신과 세계는 변화하는 사실대로 존재하게 된다.

유식학은 기억이 잠복했다가 표출하기를 반복하는 두 가지 기능을 면밀히 고찰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혀 나간다.

행위의 습관처럼 의식의 표면으로

기억은 우리 마음의 어딘가에 스며있다가 물리적인 관성 또는 행위의 습관처럼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기억은 잠복해 있다가 발동하는 정신적인 힘이므로 훈습(熏習) 또는 습기(習氣)된다. 이처럼 발동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기억이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

유식학에서는 습기로서 존재하는 심층의식, 즉 기억을 아뢰야식이라고 일컫는다. 마음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당연히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뢰야식도 기억이라는 심리 현상을 주목한 말이지만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으로 간주된다.

아뢰야식이 기억이라는 상태의 습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아뢰야식을 결코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유식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뢰야식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사를 해명한다는 점이 아뢰야식과 무의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달의 법문

나를 관찰 하자

백월사 주교 혜광 정사

요즘 우리 교도님들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편안하신지요? 들뜨거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해관계에 따라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원당에 오는 이유는 자신들이 바라는 서원사항이 발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 수행하면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하는데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라집니다. 아무생각 없이 있다면 세포들은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포들은 스트레스와 병을 동반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세포들은 활기차고 힘이 솟지요. 이러한 것은 우주의 비로자나부처님과 상응하여 힘을 받아 이루게 됩니다.

우주의 현리, 오묘하고 깊은 이치입니다. 상념활동이 과거와 달라질 때, 즉 어리석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면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식하면서 천천히 바꾸어 나갑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의식 필요
행동이 달라지면 발전과 서원이 이루어져

바쁘거나, 일이 생기거나, 속으로는 게을러서 안 되었다는 이유도 자신이 잘 압니다. 남들보다 잘 하고 싶고, 목표도 빨리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될까요? 종조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감사하는데 병이 낫는 원리

현상적으로 나타난 인간은 적어도 몇 백조의 세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포의 특성은 생장하고 분열하고 증식하는 것이다. 즉 신체는 살, 뼈는 육십년마다 전연 새로운 것과 교체되고, 새로 생긴다. 이와 같이 가경할 인체의 세포활동은 우주의 현리로서 영적가능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 세포가 곧 상념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잠재의식, 즉, 상념활동이 과거와 달라질 때 과거의 상념생활에서 얻었던 병이 의식의 변화로 낫게 되는 것이다. 참회와 보은, 감사로서 병이 낫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정신과학이다. <종조설법집 172p 제4절 마음>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자신이 무슨 생각 하느냐에 따라 세포의 움직임은 달

이어 '자기의 허물을 고치는데 병이 낫게 되는 원리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알고 변화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격을 바꿀까요? 마치 내 자신이 나의 머리위에서 나를 보듯이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다르게 행동 한다면 바로 알고 바꿔야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불성이 있으니 용맹정진하여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는 제게 그 말씀이 "너의 생각과 행동을 봐라."라고 들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외부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여 깨달은 후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고집멸도)를 설법하셨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정견'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앎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느 여름 휴가철 제 친구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를 빌려 평창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친구는 돈을 벌려고 했으나 비가 내려 매일 낭패였죠. 관광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친구는 매일 그것을 보다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모자를 사서 진열을 했지요. 결과는 이득이 컸습니다. 모자는 비도 피하고 패션도 되니 양득(兩得)이었지요. 이와 같이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밖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의미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의 경험과 유전적 성격, 잘못알고 있는 것들로 판단을 냅니다. 인연의 관계성, 순응하는 것, 세상을 바로 보는 인식, 남을 위하는 것 등을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나은 선택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성격과 행동 경험을 지양하고, 사실 그대로 보고, 바르게 관찰을 한다면, 변화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알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지니 발전과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면 미친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의 염송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의 사람과 가족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했던 행동과 말로 다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관찰의 반복과 행동의 성찰로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말고 바르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밭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③

우리는 왜 자비로워야 하는가?
자비의 갑옷

증일아함경 권 39에서 부처님은 '자비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삼매의 활과 지혜의 화살을 들고'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자비는 타자의 고통을 함께하는 행위이며, 고통을 함께하면서 정서전염도 일어나고, 또 공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로로 인해 오히려 소진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자비가 갑옷이 된다는 것일까?

자비 연구를 막 시작하던 박사과정 초기, '자비의 갑옷'이라는 경구는 나에게 화두가 되었다. 상담자인 필자가 내담자들에게 때로 너무 과도하게 공감하고, 또 그들의 고통에 전염되거나 내 고통과 분리하지 못해 소진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왜 우리는 자비로워야 할까, 또 어떻게 자비가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증진시키고, 집단 내의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며, 자애명상이 스스로를 향한 자기자비(self-compassion)도 강화시켜, 남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어진다는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자신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길

어떻게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자신의 심신의 건강에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일까?

자비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폴 길버트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신경체계를 가동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경체계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과 관련되어있어, 사랑받는 느낌의 안녕감과 내적인 고요, 타인들

대인관계 신뢰도와 사회적 연결감 증진
자기 자신을 함께 치유하고 보호하는 길

자비나 선행을 실천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자원봉사와 같은 선행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로도 불린다.

선행은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

앨런 룩스는 이처럼 남을 돕고 난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을 돕는 자의 고양감(helper's high)이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직접적인 도움 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자비명상을 통해 간접적인 자비를 실행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티베트 승려들의 뇌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왼쪽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놀라울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과 연관이 있는 오른쪽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비명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및 회복력, 면역력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비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도와 사회적 연결감을

과의 연결감을 가져오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구축한다.

즉, 긍정 정서 및 심리적 안녕감은 신체의 이완 상태를 불러오고, 이완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면역력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건강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뇌의 복측선조체는 자신이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자선 단체에 기부금이 전달되는 것을 볼 때도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두뇌 체계는 신기하게도, 자기와 타자가 받는 보상을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만들어져있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도우려는 자비의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즉각적인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이 경감되기를 바라고 도움으로써, 자신의 고통 또한 무의식적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며, 자비는 따라서 상호치유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

고통으로 가득한 사바를 건너는 우리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께 치유하고 보호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비는 매 순간 장착해야 할 가장 안전한 갑옷이 될 것이다.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심념처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3>

그림=덕광 정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도 바른 견해이지만 수행의 시작도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견해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들어가면 결국 남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의 일어남은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 라고 해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끼는 것은 마음입니다. 느끼는 마음이 닿음이라는 조건이 형성되면 느끼는 작용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겠다 라고 노력하더라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은 마음입니다. 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보는 작용을 마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은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듣는 작용을 나와 상관없이 스스로 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경전에서도 붓다께서 '나' '나의 것' '나의 진아'가 아닌 것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라라고 무수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등이 다 대상입니다. 눈에 무수한 것이 보입니다.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 색깔은 모두 우리 마음의 해석이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석은 실재가 아닙니다. 실재는 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인다는 것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모양, 색깔 등 각각이 가지는 개별적 가치는 모두 내가 해석하고 부여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것이다, 눈의 대상일 뿐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다양한 소리, 좋은 소리, 싫은 소리라는 것은 모두 내가 해석하고 가치 부여한 것입니다. 실재가 아닙니다. 실재는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들린다는 것으로서 동일합니다. 대상으로서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단지 대상으로 아십시오. 모든 느낌,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생각을 단지 대상으로 아십시오. 단지 감각기관의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서 항상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런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주십시오.

그럼 조금씩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이해가 생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며 이런 바른 견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에 작용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이 느껴지고 부드러워진 듯이 느껴지고 자유로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았을 때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깊은 이해는 특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킴으로써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 아픔, 졸림, 생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수행자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좌선을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쉽게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들림은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의 활동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모두 법의 일어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소리가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아십시오. 내가 화를 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픔도 자연스러운 법의 일어남

그것이 사람의 소리일 때 많은 경우 우리는 화로써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고 아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은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반응하고 있다고 아셔야 합니다. 좌선을 오래 하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픔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마음은 아픔을 압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압니다. 아픔을 보면서 마음은 아픔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모두 바른 수행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을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르게 보고자 할 뿐입니다. 아픔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의 일어남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픔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지 지켜볼 뿐입니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아픔이 있음을 가볍게 알아 가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켜보다가 아픔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바르게 지켜볼 수가 없으면 자세를 바꾸어주십시오. 자세를 바꾸어주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하신다면 아주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아픔이 크더라도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좌선을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이 멍하게 되면서 졸립니다. 조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는 마음의 작용도 마음의 여러 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졸리면 졸린다 라고 아십시오. 나쁜 것이다,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야 할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셔야 합니다. 조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졸림을 알아차려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자세를 바꾸기 전에 항상 그 대상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수행 중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흔히들 망상이라고 부르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릇된 마음가짐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존재의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생각도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한다 라고 아십시오. 알 수 있는 만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다 라고 아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완전히 끝이 나고 나서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계속 알 수 있는 만큼 알아 가시다 보면 조금씩 생각하면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능숙해지면 생각한다고 알면서 생각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알면 아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외에도 수행 중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머리가 멍할 수도 있고, 몸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수행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우리 존재의 진행의 한 단면이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조건 되어 일어나는 법의 일어남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다고 알면 됩니다. 단지 그런 것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란 바른 견해만 일으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모두 수행의 대상이란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수행하지 못할 시간과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언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닙니다. 붓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붓다께서는 우리에게 '알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 '나의 것' '나의 진아'가 아닌 것으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바른 견해의 지혜를 일으켜야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겨"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제2차 종정자문위원회 개원 법회
총기 31년(2002년) 8월 16일
내용 : 종조전 건립, 종단 현황 등 논의
참석인 : 경관, 수성, 효강, 원봉, 혜산 정사
법장화, 총지화 전수

8.15 민족공동행사
총기 31년(2002년) 8월 14일 ~ 16일
장소 : 조계사 및 서울시내 호텔
내용 : 8.15 민족통일대회 개막식
민족단합대회, 합동예술공연
공동미술 사진전 등
참석인 : 지성, 인선, 화령 정사,
김용주

제5회 경로법회
총기 32년(2003년) 8월 25일 ~ 26일
장소 : 충북 보은 열림원
참가인원 : 서울경인교구 71명
충청전라교구 41명
대구경북교구 109명
부산경남교구 215명
총 436명

백월사 양부만다라 봉안
총기 34년(2005년) 8월 22일
내용 : 태장계만다라(중대팔엽원)
금강계만다라(사인회) 봉안

8.15 광복 기획특집

모질고 외롭게 싸워 광복의 불씨가 되다.

밀양 백산에서 촬영한 원정 대성사님의 가족 사진 (1933~1934년 추정), 뒷줄 맨 왼쪽 원정 대성사님, 가운데 부친 손기현 님

원정 대성사 부친 손기현, 2016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서간도 망명 독립단 활동,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 승리

우리는 위대한 이들이 남긴 빛의 흔적을 뒤쫓아 간다. 원정 대성사의 행장 중 일제 침탈로 나라와 민족이 빛을 잃었던 시기의 일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의 등불이 꺼졌던 시절 민족을 반역한 이도 있고, 모질고 외롭게 싸워 광복의 불씨가 된 이도 있었다. 대성사의 가족사는 역사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게 한다. 성사께서 진호국가불공(縝護國家佛供)을 시작한 뜻을 성사의 행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대성사가 탄생하신 1907년은 조선의 국운이 꺼져가던 시절이다. 성사의 부친 손기현(孫基賢, 1883~1942)님은 망국의 유감을 곱씹으며 당시 의병과 지사들이 나섰던 길을 뒤 따라갔다. 조상 대대로 번성하던 밀양 다죽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이제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성사님 형제를 앞세워 망명의 길을 떠났다.

소달구지 하나에 가산을 모두 싣고 부부와 어린 두 아들이 함경도 초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길고 먼 고통의 행로를 걸어갔다. 여느 망명객들이 그렇듯 어두운 밤 달빛을 호롱불 삼아 압록강을 건너 자리 잡은 곳은 서간도 환인현 남관(桓仁縣 南關)이란 곳이다.

환인현은 당시의 봉천성, 지금의 랴오닝성 선양시(瀋陽市) 인근으로 옛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이 있던 곳이다. 일제를 피해 망명객들이 모여들어 서간도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됐는데,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고 당시 상해임시정부 아래 조직된 서로군정서의 거점지역이다.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들 다수도 서간도 일대에 정착했고 대성사 가족도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다.

대성사 가족은 농사지을 땅을 얻어 옥수수밭을 일구고, 콩이며 조, 감자 따위를 심어 거친 끼니나마 채울 수 있었다. 역사와 민족과 개인 모두가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던 시절이다. 돌을 나르고 물을 끌어들여 황무지를 개간해 논과 밭을 만드는 와중에도 지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쳤다.

숨어서 무기를 사들이고 힘을 기르던 간도 땅 대한국인들 사이에 불꽃을 당긴 사건이 벌어졌는데 1919년 3.1운동이다. 그해 3월 12일 서간도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돼 며칠 동안 일대의 동포들이 시위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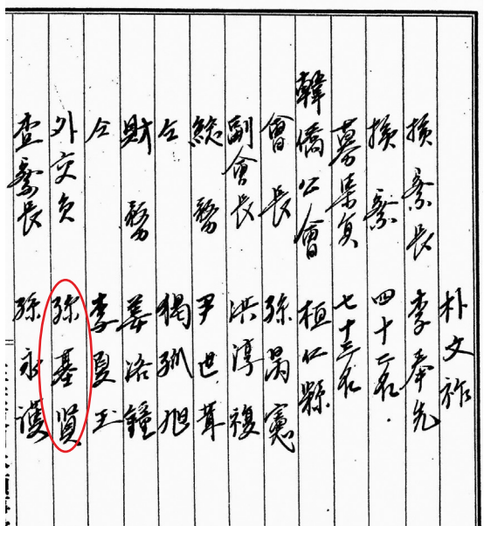
그리고 이듬해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 휘하의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여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 사건은 독립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질렀지만, 한편 일본제국군의 집요한 토벌 작전으로 이어졌다.

대성사의 부친은 상해임시정부와 연관된 환인현 한교공회(韓僑公會) 외교원 신분으로 독립군을 위해 무기조달을 하고 있었다.

대성사의 집은 독립군 회합 장소가 됐고, 어린 대성사는 그들을 위해 즐겨 심부름을 했다. 늦은 밤까지 독립군들이 모여 뜻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졌으며 작전 회의를 하던 모습을 대성사는 고스란히 지켜보고 기억했다. 대성사의 모친은 동지들을 위해 조밥과 감자나마 배불리 차려 내놓았다.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후 일제는 서간도 일대 독립 세력을 집요하게 추적하였는데 대성사의 부친도 오랜 감시 끝에 1920년 10월 체포돼 만주 일본 안동 영사관으로 압송돼 재판에 넘겨졌다. 독립단 활동의 죄목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다. 당시 일본 밀정의 비밀보고서에는 홍범도 장군과 연계된 인물로 지목됐고, 함께 체포된 90여 명의 일행 중 세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독립군의 무기로 조달된 것이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 수백 정에 이른다고 보고됐고, 체포 당시 압수된 총기류와 독립군복, 기타 물자 등도 상당한 규모였다. 대성사의 부친은 그 핵심 인물로 체포된 것이다. 체포 당시의 정황은 대성사님 여동생의 증언을 통해 남아있다. 아침나절 일본헌병대 무리가 집으로 들이닥쳐 조선독립군을 보았냐고 다그치자 부인한다.



밀정보고서 (1920년 5월 1일)

독립신문 봉오동 승전 기사 (1920년 6월 22일) 〈자료출처=독립기념관〉

대성사님의 부친과 형이 곧바로 헌병대로 끌려갔는데, 심문과 함께 가혹한 고문이 시작됐다. 손톱 밑에 바늘을 꽂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집게로 집어 비틀었다. 거꾸로 매달아 구타를 했고, 코에는 소금물을 들이부었다. 부친은 다시 압송돼 재판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형은 모진 고문 끝에 보름 만에 석방됐으나 평생의 병을 얻게 된다. 집안에 성한 남자는 오직 대성사님 하나뿐으로 어린 탓에 겨우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 곡절을 겪고 아픈 몸으로 돌아온 큰아들과 대성사님은 독립군에 합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부친이 떠난 자리를 지키던 어머니가 간곡히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성사의 모친은 불심이 깊어 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과 함께 잡힌 이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 살아있는 것은 미물조차 해치지 말라 하여 눈에 띄면 종이로 싸서 치우고 자식들에게도 그리하도록 가르쳤다 한다.

옥고를 마친 후에도 일본군의 압박은 그치지 않았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독립전쟁 이후에도 간도 땅 일대의 독립운동은 기세를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성사님 가족에게 찍힌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체포된 독립운동가의 재판에서 대성사님의 부친은 그의 혐의를 부정하는 증언을 한다. 체포된 이는 결국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밝혀 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 생명이 용기 있는 증언에 의해 살아난 것이다.

사사건건 일제에 협조하지 않던 대성사님 가족의 생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농사도 여의치 않고, 일제와 밀정은 감시와 압박을 늦추지 않았으니 애써 망명한 땅에서 살아갈 방도를 잃었다. 친일은 삼대가 부자로 살고, 항일은 삼대가 고초를 겪는다는 말은 공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은 큰 뜻을 세워 망명길에 나섰던 먼 길을, 하염없이 걸어서 되돌아오게 된다. 이제는 여비조차 없어 주변에서 한 푼 두 푼을 모아 겨우겨우 고향에 올 수 있었다. 대성사님 가족의 고초는 2016년에야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에 의해 광복된 나라의 위로를 받았다.

소인은 소아(小我)에 집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고, 대인은 중생을 대아(大我)로 삼아 보살의 길을 걸어간다. 대성사님이 진호국가불공을 가르치고 나라와 중생의 영토를 위해 불공을 행한 것도, 암흑의 시절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부친을 지켜보고 독립군들을 위해 주전자라도 들어 나르는 일에 힘을 보탠 숙업의 인과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남겨진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민족의 광복(光復)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역사의 빛을 다시 밝히는 일이고, 밀교 수행자의 광복은 끝없이 서원하고 불공을 그치지 않아 무명에 덮인 마음의 빛을 되찾는 일일 것이다.

어린 시절의 대성사께서는 조국 광복에 작은 빛이 나마 더했고, 창종으로 말법시대 세상에 마음의 빛을 되 밝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무명으로부터 광복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작가 김천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제6회 경로법회
총기 34년(2005년) 8월 30일

장소 : 도고 유스호스텔
참석인원 :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승단 등 500여 명

중국 구화산 성지 순례
총기 35년(2006년)
8월 14일 ~ 18일(1차)
8월 28일 ~ 9월 1일(2차)

장소 : 구화산 불학원 방문, 김교각 스님 육신전, 지장 선사 참배, 항저우 서호, 영은사 참배
참석인원 : 1차 34명, 2차 44명
참석자 : 기로스승 포함 승단 전체

제7회 경로법회
총기 36년(2007년)
8월 29일 ~ 30일

장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주리조트
참석인원 : 493명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
총기 37년(2008년)
8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43)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18)

법경 정사
(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계심(械心)

중생의 마음을 계심(械心)이라 한다. 계심은 형틀의 마음이다. 왜 형틀의 마음이라 하는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계심이라 하는가? 두 발이 그친 것처럼 머무는 것을 성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얽매어있는 마음이 계심이다. 구속되어 머물러 있는 마음이다. '손 묶는 것을 쇠고랑이라 하며, 발에 차는 것을 차꼬[械]라 한다. 사람이 차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이 멈추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언제나 단정히 앉기를 좋아하고 적연하게 머물러서 선정의 마음을 닦으며 법의 뜻을 관찰하면서도 이것에 구속되기에 차꼬의 마음이라고 이름한다.' 머물러 스스로 구속하는 마음이 계심이다. 계(械)는 형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두 개의 기다란 토막나무 틈에 가로로 구멍을 파서 죄인의 두 발목을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는 형틀, 수갑의 일종이다.

이렇게 손이나 발을 수갑으로 채우면 꼼짝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수갑을 채운 것처럼 한 생각에 갇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말한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는데, 저 언덕이 아니라 뗏목에 오히려 연연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마음이다.

뗏목을 버리지 못한 마음이다. 집착과 아집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이를 벗어나는 길은 고요하고 자유자재한 걸림 없는 마음이다.

『소』에 이르기를, '차꼬의 마음을 다스리는 행은 모든 때와 장소에서 사유하고 수습하여 고요한 선정에 들어 들고남이 없게 해야 한다. 이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법구경』에서도 걸림 없는 마음을 강조하였다. '허공에는 바퀴의 흔적 없듯이 수행자의 마음은 다른 뜻 없네. 사람들은 세속의 악을 즐기나 깨친 자는 마음에 때가 없도다.' 허공과 같은 마음이 계심(械心)을 다스리는 마음이다.

운심(雲心)

중생의 마음을 운심(雲心)에 비유하고 있다. 운심이란 구름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인가?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무엇을 구름의 마음[雲心]이라 하는가? 언제나 비 내리려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고 있다. 구름이 끼었을 때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고(苦)를 지닌다.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락(樂)을 만끽하기도 한다. 그런 마음은 늘 일비일희(一悲一喜)하여 고락(苦樂)으로 천착하게 된다.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다. 이를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인도의 여름철 석 달 중에는 장맛비가 특히 심하여 언제나 막혀 있고 어둡기 때문에 당시의 풍속에서는 삼가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 금하는 것이 매우 많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사념(思念)한다고 하였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운심(雲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하다. 뗏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을 다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 굳이 뗏목을 힘들게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된다. 마치 비를 내리는 운심(雲心)을 화창한 햇살로 걷어내는 것과 같이하여야 한다. 이를 『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비 내릴 때 사념하더라도 깨치고 나면 곧 사심(捨心)을 행하여 세간의 근심과 기쁨을 여의고 법의 기쁨에 수순해야 한다. 이것이 운심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심(捨心)은 버리는 마음이다. 즉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근심과 걱정,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도 집착하는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설하였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그러므로 함부로 짓지 말아야 한다.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아무렇게 짓는 그 마음을 없애야 한다. 막행막식하지 말아야 한다. 운심(雲心)을 사심(捨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심(田心)

중생의 마음은 전심(田心)이다. 전심은 밭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인가?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밭의 마음(田心)이라 하는가? 항시 자기 몸만 닦는 것을 말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좋게 보면, 자기 수행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다. 전(田)은 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비슷한 뜻으로서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전심(田心)은 바로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좋고 기름진 밭이 있으면 언제나 다듬고 갈고 개간하여 잡초를 제거하며 갖가지의 방편으로 청정하게 하듯이 이 사람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언제나 그 몸을 닦는 것만 좋아하며 향과 꽃과 맛있는 것 등으로 뿌리고 바르며 봉양하여 힘써서 빛나고 깨끗하며 장엄하여 좋게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보인다.

밭을 갈고 다듬고 잡초를 제거하고 여러 방편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몸을 닦고 향과 꽃 등으로 꾸미고 장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집착하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기만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얼굴을 가꾸고 몸을 단정히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마음의 전부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주객이 전도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형국이다.

그래서 『소』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을 깨닫고 나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공들여 닦는 마음을 돌려서 모든 공양의 도구로써 복전(福田)에 파종하여 심고 훌륭한 과를 얻도록 하겠노라.'

이는 아전인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타심(利他心)으로써 이타행(利他行)을 행하는 것이다. 전심(田心)은 이기심(利己心)이오, 복전(福田)에 파종하여 심고 훌륭한 과를 얻으려는 마음은 이타심(利他心)이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열반을 넘어 다른 이를 위한 이타심, 이타행이다. 이것이 선심(善心)과 선행(善行)이오, 또한 자비심(慈悲心)과 자비행(慈悲行)인 것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용수 보살 '나가르주나'

나가르주나(龍樹, 150-250)는 팔종(八宗)의 조사로 일컬어지듯이 모든 종파와 교파에서 숭앙하는 인물이며 밀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용수보살로 잘 알려졌지만 밀교의 조사라면 용수아사리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나가르주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2, 3세기경이기 때문에 밀교사의 연원을 고려하면 밀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가르주나가 팔부중도의 논리로 밝힌 공사상은 석가모니 붓다의 연기설을 밝힌 것으로 모든 불교 교학과 실천원리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밀교교학과 의례에서 나가르주나를 빼놓을 수 없다.

<84성취자전>에 등장하는 나가르주나는 어떤 모습일까 매우 궁금해서 소개할까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나가르주나의 전기보다 각색된 허구를 더 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르면 나가르주나는 동인도 깐찌 지방의 까호라라는 곳에서 살았으며, 브라만 출신이었다. 원래 까호라는 1,500의 소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도둑이 들끓어 삶이 척박해지자 브라만들이 모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나가르주나는 이주를 말리고 대신 이곳을 번영한 곳으로 바꾸었다.

나가르주나는 나란다사를 방문하여 다라보살에 기도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신이를 경험했다. 나가르주나는 라자그라하로 가서 열두 토속신을 조복하였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나가르주나는 수행할 만큼 쌀과 다섯 가지 채소를 달라고 하였다.

이후 간다실라로 가서 산을 금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문수보살이 조언하길 이는 더 큰 분쟁과 악업을 조장할 것이라 조언하여 그만두었다.

나가르주나의 전기를 전하는 많은 문헌이 있지만 <84성취자전>에는 소몰이꾼 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왕은 나가르주나에게 국가통치에 대해 자주 조언을 부탁하였다.

백 년 후 브라만들과의 갈등으로 소몰이꾼은 왕위를 버리고 나가르주나의 제자가 되었다. 왕국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였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교가 쇠퇴한 것에 원인이 있었다. 나가르주나의 죽음은 브라만으로 변신한 브라흐마가 나가르주나에게 머리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나가르주나가 외도와의 갈등, 정치사와 얽힌 내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나가르주나는 열반에 들기 전 자신을 미워하던 비구니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있는 것이 싫지요?"라고 조롱하며 입적했다는데, 이 역시 나가르주나가 자신이 설파한 공사상으로 외도와 다른 불교 학파의 미움을 산 배경을 보이는 것이다.

밀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밀교가 유행할 당시 인도 사회와 스승들, 그들이 전파한 밀교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

<84성취자전>은 밀교아사리들 대부분이 재가의 몸으로 방대한 인도 경전의 교의를 간결한 의궤를 통해 요약해 수습하고, 몸과 말, 마음에 담아 소박하지만 강렬한 진리의 열정과 갈구를 한몸에 성취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나가르주나가 보인 신이는 밀교의 성취자로서 일체지지와 신변을 보인 것이며, 정치적 조언과 관련해 재가, 출가의 경계에서 자유로웠던 것 같다.

불교의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미륵 사상에 입각해 살펴보면 미래에는 인류 모두가 수행자이며, 이타적 삶을 실현하고, 환경과 생산을 맡으며, 승려들은 50억 년 전 석가모니 붓다 시대의 교단 전통을 지키면서 붓다와 보살, 조사들에 대한 예경과 망자의 제의를 집행하는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어쩌면 <84성취자전>에 보이는 스승들은 미륵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재가불교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 표 최병철
주 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 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종립 동해중 소식

학부모 불자회 '동해 반야회' 첫 모임

매월 넷째 주 동해사에서 정기법회, 산사순례도

'동해 반야회'가 지난 7월 28일 본관 2층 도서관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가졌다.

종립 동해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동해 반야회(지도법사: 법선 정사)'가 2020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를 회원으로 맞이하는 공식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7월 28일 학교 본관 2층 도서관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달 9월 처음 열리는 법회에 앞서 신입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학교장 인사 및 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법선 정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마음 보자기' 라는 주제로 설법 후 불교총지종에 대한 역사와 수행법, 진언과 불사의궤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실수를 통해 종단을 처음 접하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반야회의 역사와 연간 활동 등 반야회 모임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법선 정사는 "모임의 이름처럼 자비심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는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으로 삼아 지역과 학부모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인근 교장은 인사말을 대신해 "동해중학교는 학생들의 생각의 뜻을 키우는 교육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색사업일환으로 학생 자율성을 높이는 '학생 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반야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또 학교는 반야회의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 할 것도 약속했다.

반야회 권윤희 회장은 "코로나로 앞으로 일정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오는 9월 법회에서는 회원들과 단주 만들기 실습을 할 계획이며, 상황이 허락되는대로 불심을 키우는데 게으르지 않겠다."고 합장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윤희(3-2, 김세윤 군 엄마) △부회장 겸 총무: 지은경(2-1, 허명재 군 엄마), △1학년 대표: 박지영(1-4, 허지민 엄마) 이상 3명.

동해중=박재원 기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신임 시설장에 임명장

7월 8일 통리원 석관실버센터 나석원, 다함께키움센터 김민주 센터장

왼쪽부터 나석원 센터장, 이사장 인선 정사, 김민주 센터장〈사진=전서호 기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은 지난 7월 8일 상반기 성북구와 강남구로부터 수탁한 두 곳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통리원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나석원 신임 센터장과 강남 다함께키움센터의 김민주 초대 센터장이 이사장 인선 정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인선 정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조직의 화합과 시설별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 경력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한 만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며, 재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명장을 받은 나석원 센터장은 "조직 일원의 낮은 자세로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민주 센터장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나석원 센터장은 2011년부터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및 진각홈케어성북센터에서 센터장을 겸임하여 총괄 운영해왔으며, 김민주 센터장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천태종복지재단 청솔지역아동센터 책임을 맡아 성남시 우수지역아동센터로 4년간 운영을 해왔다. 한편 강남 다함께키움센터는 8월 중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

역삼한담

남의 글이 고맙다

"이건 정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거야."

무언가 심각한 것을 놓친 게 분명했다. 책임교정을 보는 나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 뭔데요."

출판사 대표는 1차 대장을 펼쳐 손가락으로 찍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소나무에 대한 설명인데 "질경이는~"로 시작하고 있었다. 형식이 반복되다 보니 필자가 앞의 내용을 복사해 쓰면서 실수를 한 것이다.

아무리 필자가 실수했더라도 편집자가 당연히 잡아야 할 내용이었다. 원고 상태에서 2번을 보고, 편집 디자인 후 1차 교정을 봤는데도 놓친 것이다.

그 후 필자에게 PDF 파일을 보내 확인까지 했지만, 필자 역시 놓쳤다. 그것을 대표가 발견하고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이다.

"책이 나오기 전이라 다행이네요."

겨우 변명 비슷하게 한마디 했다. 이상하게 그런 건 책 발간 후 눈에 잘 띈다. 그러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의 프로젝트가 다 '꽝'이다. 고생한 것은 다 묻히고 잘못한 것만 부각된다. 뒷수습도 난감하다.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요즘 한 출판사에서 사전 만드는 일과 주간잡지사에 객원으로 교열을 하고 있다. 그동안 단행본, 잡지, 백서 등 많은 인쇄물을 만들었지만, 주간지 교열과 사전 제작은 처음이다.

주간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사전은 다른 인쇄물보다 원칙에 더 충실해야 한다.

특히 띄어쓰기 적용에서 허용이 아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분야별 필자들에게 보내는 원고청탁서에 통일된 양식의 순서와 내용, 문장부호 등의 규정을 명기했지만, 보내온 원고는 편집자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원고 상태에서 2차까지 보면서 '하였다'를 '했다'로, '되었다'를 '됐다'로 서술어를 통일시키고, 숫자와 한자, 영문 표기를 통일시켰다.

가장 어려운 것은 명사와 명사의 띄어쓰기다.

예를 들어 어로 기구, 어로 활동, 어로 작업, 어로 시기, 어로 방법 등이 있다면 필자마다 붙이고 띄어 쓴다. 심지어 어떤 필자는 같은 원고에서 어디는 띄어 쓰고, 어디는 붙여쓰기도 한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다. 가령 "원양어업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 및 연안국의 EEZ에서 행해지는 어업"이라는 문장을 보자.

이 문장은 주어가 '원양어업은'이므로 서술어는 '행해진다'가 돼야 한다. 긴 문장일수록 이런 비문이 많다. '뱃속의 태아'로 시작하는 글도 있었다. 태아는 "모체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이므로 그냥 '태아'로 써야 한다. 불필요하게 들어간 '뱃속'도 '배속'으로 표기해야 한다.

몇 년 전, 사실을 바탕으로 쓴 「윤문」이라는 시에서 "선인세 몇억은 기본이라는 저자의 글을 고치다 보면 도대체 글을 쓴다는 사람이, 글을 써서 먹고산다는 글쟁이가 이것밖에 못 써,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싶다가도 이걸로 우리 가족이 먹고살지, 노모의 병원비를 대지, 생각에 이르면 남의 글이 고맙다"고 했다.

시를 발표하고 사람들이 물었다. "그 시 내용이 사실이냐?"고, "그가 누구냐?"고. 그걸 어찌 밝히겠는가. 그저 배시시 웃어 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말 새빨갛게 고쳤다.

편집자가 가장 두려운 날은 인쇄물이 나오는 날이다. 칭찬은 언감생심이고, 조용히 지나가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전화라도 걸려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 사고는 늘 날 수 있지만, 뒷수습이 중요하다. 말은 오해를 낳는다. 직접 만나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책 만드는 일은 참 어렵다. 우리말은 더 어렵다.

시인 김정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김위식	7/6	60,000
건화사	법상	7/20	30,000
관성사	김사룡	6/25	20,000
	황성녀	6/25	10,000
	인선	7/20	20,000
관음사	김정희	7/20	10,000
기로스승	해정	7/1	10,000
	효강	7/16	200,000
	법계월	7/16	200,000
	상지화	7/20	10,000
	수증원	7/20	10,000
	밀공정	7/20	10,000
	총지화	7/20	10,000
	법수원	7/20	10,000
	선도원	7/20	10,000
	법지원	7/20	10,000
	일성혜	7/20	10,000
	사홍화	7/20	10,000
	안주화	7/20	10,000
	진일심	7/20	10,000
	시각화	7/20	10,000
	최상관	7/20	10,000
	연등원	7/20	10,000
단향사	박귀임	6/27	10,000

단향사	지홍	7/12	10,000
	이상채	7/12	10,000
	이수형	7/13	10,000
동해사	송인근	6/22	10,000
	김진화	7/1	10,000
	송인근	7/20	10,000
	법선	7/20	10,000
밀인사	김재영	6/21	10,000
	김재영	7/19	10,000
백월사	김깔마자	6/29	10,000
법천사	반야심	6/30	10,000
법황사	유승태	7/4	10,000
벽룡사	승원	7/20	10,000
	묘원화	7/20	10,000
볏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7/7	50,000
사원 무기명	남영애	7/1	30,000
	이진승	7/7	10,000
	강춘란	7/7	10,000
	박필남	7/16	10,000
	김연수	7/16	50,000
	대안화	7/16	100,000
	김갑선	7/20	10,000
성화사	이학열	6/23	20,000

수인사	정순득	6/26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나석원	6/29	20,000
실보사	이순옥	6/24	10,000
	박성호	6/24	10,000
	박성호	7/9	10,000
	이순옥	7/9	10,000
실지사	정혜정	6/29	10,000
	연화법	6/29	10,000
	유승우	7/5	10,000
	이도현	7/8	10,000
	이서현	7/8	10,000
	덕광	7/20	10,000
	보현	7/20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7/8	5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6/25	50,000
	구미자	6/30	10,000
	최자영	7/7	10,000
	이현직	7/10	10,000
자석사	도우	7/13	10,000
	지현	7/13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7/10	50,000

운천사	반야화	6/27	30,000
정각사	변순개	7/7	10,000
	안한수	7/11	10,000
제석사	시법	7/16	100,000
초록 어린이집	강혜란	6/25	10,000
	이지희	6/26	100,000
	이미자	6/29	10,000
총지사	최영아	7/15	10,000
	김정화	7/15	10,000
	원당	7/15	10,000
	묘심해	7/15	10,000
	홍수민	7/16	10,000
	이수경	7/20	20,000
	박정희	7/20	10,000
	신용도	7/20	10,000
통리원	김평석	7/13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7/2	50,000
	무명씨	6/22	10,000
	강점이	7/6	10,000
	강승민	7/10	5,000
	최영미	7/10	5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7/10	50,000

BOOK 소리

반주 달린 악보집 「찬불가곡 108」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 QR코드 연동 유튜브로 찬불가 음원 사용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 음원을 듣고 사용할 수 있는 악보집이 출간됐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대표: 강형진)는 일반 불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찬불가 반주 음원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악보에 QR코드를 첨부한 악보집 「찬불가곡 108」을 펴냈다.

이번 악보집에는 의식곡으로 삼귀의, 보현행원, 사홍서원 등과 '고운 님 잘 가소서', '연등 들어 밝히자',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종단 행사에서도 널리 애창되는 노래 108곡이 수록되었다. 악보들의 특징은 철저히 일반 불자들에게 맞춰졌다.

108곡 악보마다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으로도 반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찬불가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음역대로 제작됐으며, 모임에서 기타로도 반주할 수 있도록 기타 코드를 수록했다. 노래와 노래 반주를 따로 분리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불교음악아카데미 대표 겸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5년 전 찬불가 교육프로그램에서 만난 수강생의 요청으로 악보집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피아노와 반주자가 없는 등 환경적 제약으로 찬불가를 배우지 못했던 불자들이 찬불가를 손쉽게 접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번 악보집은 '찬불가 대중화'의 뜻을 함께하는 지도교수와 찬불가 지도사들이 모여 십시일반으로 찬불가 추천 및 모연을 통해 만들어졌다. 전국 서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불교음악아카데미에서는 사찰과 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찬불가 지도사 1급 수료자에 한하여 지도사를 파견 중이며, 동국대 힐링 코러스 합창단은 불교 행사를 비롯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매월 첫째 월요일 저녁 "무연고자 시민장례식"에 조가 노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詩방정토

고사(古寺)

김달진(1907~1989)

밤이 깊어가서 비는 언제 멎어지었다.
꽃 향기 나직히 새어들고 있었다.

모기장 밖으로
잣나무 숲 끝으로
달이 나와 있었다.
구름이 떠 있었다.

풍경 소리에 꿈이 놀란 듯
작약꽃 두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의희한 탑 그늘에
천 년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아, 모든 것 속절없었다.
멀리 어디서 뻐꾸기가 울고 있었다.

호는 월하(月下). 1929년 시 〈잡영수곡 雜泳數曲〉을 『문예공론』에 발표하여 등단.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 수도생활을 하다가 1934년 동아일보에 〈나의 뜰〉·〈유점사를 찾아서〉 발표 후 본격적인 문학 활동. 1939년 불교전문학교를 마쳤으며, 8·15해방 후에는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조선청년문학가협회 부회장 역임. 1964년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 심사위원으로서 고려대장경 역경 사업을 펼쳤다. 한용운에서 조지훈으로 이어지는 동양적 정신세계와 신석정(辛夕汀) 등의 불교적·노장적 시세계를 독자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불교와 드라마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부부의 세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영국의 BBC 드라마 <닥터포스터>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닥터 포스터>의 작가 마이크 바틀렛은 주인공 모티브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데이아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아손은 황금양털을 얻기 위해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메데이아는 최선을 다해서 이아손을 도왔습니다. 조국을 배신했고, 동생들의 목숨까지 이아손의 목적과 맞바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메데이아와 이아손 사이엔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배신했습니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 왕의 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아손의 배신에 분노한 메데이아는 사랑과 헌신이 깊었던 만큼 증오와 복수심도 살벌했습니다. 이아손을 파괴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됐고,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황폐해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아손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둘까지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절망한 이아손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메데이아와 이아손 이야기처럼 애정과 파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줄 정도로 지극해 보이던 사랑도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상대를 파멸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증오심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랑이야말로 증오심과 가장 가까운 감정인 것입니다.

지선우(김희애)는 자신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스카프에 붙은 한 올의 여자 머리카락으로부터 미세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그동안 남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내연녀에게 비싼 핸드백을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의 보험까지 해약하면서 자신을 속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뢰가 깨졌어,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면 모든 게 명료하고 간단한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지선우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었던 만큼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차지했습니다. 증오인 것입니다. 증오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너로 인해 상실감과 아픔을 겪은 만큼 그것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파멸을 갈구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나쁜 점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자신을 먼저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수심과 분노가 가정 먼저 태워버리는 것은 나의 영혼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가장 먼저 파멸시키는 것 또한 자신인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었던 사람일수록 이런 상태에 더 깊게 빠져버리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부부의 세계>의 지선우 또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그걸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들이 겪어야 하는 상실감이나 슬픔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끝없는 싸움에 지치고, 엄마와 아빠 둘 다에게 심한 혐오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아손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을 죽인 메데이아나 남편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으로 아들의 상처 같은 건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않아서 결국 아들을 망가뜨린 지선우나 복수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선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미 물은 엎어졌고, 관계는 깨졌는데,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에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까를 먼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면 아마도 남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들도 무사히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는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게 중심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하고, 이 세계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도 좀 더 쉽게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작가 김은주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SAMHWA 삼화페인트 NOROO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방수공사전문업체 ▸각종페인트 도·소매
▸인테리어 집칠 ▸기와칠 벽돌방수
▸공사청부

대표 김치승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92-261 전화 02) 873-9600 / 02) 877-3610 팩스 02) 873-4113 야간 02) 873-1892 핸드폰 011-283-3610

총지 50년 기획
참교도 찾기 ②

백의의 천사에서 방호복의 전사로…

대구경북대병원 이은별 간호사

인선 정사가 이은별 간호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자료사진=대구경북대병원 제공(가운데 이은별 간호사)

"지치고 힘이 들 때면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대구경북대학병원 이은별(26) 간호사는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계 중환자실로 급히 전환 배치되었다.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퍼졌고, 당시 신규 확진자 수가 900여 명까지 치솟으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병원과 의료진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더 이상 백의의 천사는 없고, 소리 없는 총성 속에서 방호복을 입은 전사만 있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드디어 이 간호사는 밀행사 주교 행원심 전수의 온전한 딸로, 모두의 영웅으로 다시 돌아왔다. 종단에서도 7월 21일 운천사에 온 이 간호사에게 격려금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날마다 응급상황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사투
중환자를 일반병동에 보내며 보람과 사명감

"레벨 D 방호복을 입기 시작한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혀서 과연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음압 치료실에 들어선 첫날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방호복을 입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했던 나날이었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안타깝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의식 없는 환자들이었다. 그런 환자들을 위해 이 간호사는 체위를 자주 바꾸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 했으며, 인공호흡기나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 의료기기의 설정값에 따라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시하고 꼼꼼히 기록했다. 만약 감시 값에 벗어난다면 의사의 처방 하에 설정값을 바꾸고 치료의 방향을 조절하며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이 간호사의 일상이었다.

매일매일 응급상황을 겪으며 이 간호사는 상태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가는 환자들을 보았을 때 의료진으로서 보람과 사명감을 느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속으로 인사합니다. 중환자실로 다시 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병동으로 가는 환자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구나 생각하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하는 슬프고 아픈 일이 또 있을까. 가족들 중 유일하게 아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환자의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손도 잡고 마지막 대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우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무섭고 끔찍한 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서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멀리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동료들이 있었기에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병원에서 이 간호사에게 힘이 되어준 건 하루에 한 번 가족들과의 영상통화였다.

"저는 다시 외과계 중환자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졌다가도 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다시 코로나 환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지키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기에 이 시기를 다 같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서호 기자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정각사 해탈절 경품 나눔 행사

7월 15일 부산 정각사(주교 : 법경 정사)에서는 해탈절 재불공 회향법회에 앞서 동참 교도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펼쳤다.

평소 좋아하는 경전문구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청서에 기재,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경품을 선사했다.

정각사=한미옥 통신원

성화사 자비 방생, 구고 방생

부산 성화사(주교: 금강륜 전수)는 하반기 49일 회향을 마치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인간방생을 대신해 교도들은 7월17일 부산 해운대 거북바위에서 새끼 거북이 등을 놓아주었다.

성화사=김경인 통신원

총지스케치

기고

지혜의 향기

前 동해중 탁상달 교장

자연의 섭리란,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기기 마련이고,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일은 자연히 성사되기 마련입니다. 즉 시기가 무르익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든다면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삶은 덩달아 피곤해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이 트고, 화 또한 자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조망해 보면,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지는 꽃은 또 다시 필 수 있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합니다. 병 없는 것이 제일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가는 부자입니다.

고요함에 머무를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을 실천해 보는 보살도를 기원해 봅니다. 이것이 삶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 종보실
- Tel : 02-552-1080
- 보낼 곳 : 우편 및 이메일
- E-mail :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史

50

마감 일정 2020. 10. 31.

불교총지종